

10  
2024

# 재외동포의

# 창



특별인터뷰 \_ 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

특집 \_ '중소기업 · 한상 상생 한마당' ...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기획 \_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논의 '제25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성황

이슈 & 화제 \_ 윤석열 대통령,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행사 영상 축사



# “동포들을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 고국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적극적 관심 필요

**최** 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 국적자고, 이들 중 16명이 재외동포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아리셀 화재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 또한 얼마나 취약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주요 비자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 등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는 3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직종의 취업은 제한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 동포에게는 F-4 비자가 아닌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다. H-2 비자는 최대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이후에는 재연장이 불가하며, 본국으로 귀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H-2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 취업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H-2 비자는 고용이 허용된 업종과 특례고용허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 특례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단순노무 등 일용직 시장의 빈자리를 이미 F-4, H-2 비자를 받은 동포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동포임에도 비자 구분에 따른 복잡한 취업규정은 동포들을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정식 경로가 아닌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정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이번 화성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H-2 비자를 받은 동포들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포 비자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H-2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재외동포 숫자도 급감하고 있고, 같은 동포들을 F-4와



정주원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H-2 비자로 구분함으로써 차별적이라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취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동포 체류자격을 일원화하고, 복잡한 취업규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동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동포 체류자격의 통합 추진’ ‘인구 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는 2024년 7월 통계 기준 87만여 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33%가 넘는다. 지금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의 인구 감소와 한국의 부족한 노동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력 유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민청 등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할 때다. **창**



<b>02 창을 열며</b>	“동포들을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정주원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b>04 특별인터뷰</b>	<b>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b> “재외동포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소중한 협력 파트너”
<b>08 특집</b>	<b>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b> ‘중소기업 · 한상 상생 한마당’ 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위촉... “모국 기업 해외진출 돕겠다” 한인비즈니스대회서 5천만달러 수출 계약... “단일 건 역대 최대” 인터뷰 - “문화 · 비즈니스 융합 한마당” ‘로봇의 신’ 데니스 흥 “인간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
<b>14 기획</b>	<b>2024 세계한인회장대회</b>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논의의 장 50개국 350여 명 한인회장 · 대륙별 임원 참가 ‘성황’ 인터뷰 - “재외동포 일편단심 모국 공헌 재조명해야” “모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
<b>18 이슈 &amp; 화제</b>	윤석열 대통령, “동포의 눈부신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힘”
<b>20 뉴스 속으로</b>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재외동포 번역가들 숨은 공로 빛났다 “내년 삼일절에 50만 명 갓쓰고 행사 벌이는 게 꿈”
<b>22 글로벌 코리안</b>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태극 태권도 영웅’ 최영석 감독, 왕실 최고등급훈장 받았다 6살에 한국 떠나, 46년 만에 주한 미군 장군으로 금의환향 화제
<b>24 OKA 뉴스</b>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외
<b>26 재외동포청 공지</b>	‘2024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장혜영(시) · 조성국(소설) · 이명란(수필 · 수기)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재외동포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소중한 협력 파트너”

모국 기여 알리는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 민원 해결 적극 추진

“오늘날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의 주류사회에 진출해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소중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700만 재외동포는 한민족 자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31일 제2대 청장에 취임한 그는 이날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 사회에 기여하고, 고국과 거주국의 연결고리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임기 중 우선할 정책에 대해 “과거 동포정책은 우리의 아픈 이주 역사의 치유에 집중했기에 동포사회와 본국과의 민족적, 감성적 유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많은 동포분이 거주국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는 등 재외동포 사회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동포청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동포청 신설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역대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실현이 됐습니다. 동포청을 신설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가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입니다. 오늘날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 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과 거주국의 연결고리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 “700만 재외동포는 한민족 자산”

그런데도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2대 청장으로서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국내에 어떻게 알리고 국내외 동포 간 상생을 이끌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인식 틀이 형성되는 학령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초등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개념과 이주 배경, 모국 기여 사례를 수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모국기여 사례를 홍보하는 등의 대국민 아웃리치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인식조사, 정책 만족도조사 연례 시행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두 대회는 성격이 다르지만 동포사회와 모국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금년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인회장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에서 진일보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우뚝 선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들과 대한민국이 같은 호흡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역량을 모으는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인회장대회 시작 프로그램인 ‘나의 조국, My Korea’는 한인회장 여러분들이 거주국에서 한국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동포들이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새롭게 선보인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한인회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외동포청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재외동포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와의 대화’와 한인회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한인회 우수 사업 사례 소개’ 등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한인회장님들이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002년 제1차 세계한상대회를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동 대회는 매년 10월 개최, 명실상부한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규모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대회가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화합의 장을 넘어 ‘한상(韓商)’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년 대회는 컨벤션센터가 아닌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되는 첫 대회라는 특성을 반영, ‘지역 청년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국내청년 대상 토크콘서트, CEO특강 등 다양한 청년 참가 프로그램들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직업 연결하는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스타트업 경연대회, VC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 재외동포는 인구감소나 노동력 부족 해법 중 하나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시대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유입

을 바라보고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포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요.

“동포청은 동포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감소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동포청이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로 보고, 국내 동포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사전준비부터 입국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지원하는 토털케어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에 초기 정착 준비를 돕는 ‘국내동포 정착지원 안내서’를 배포하고, 내년에는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거나, 동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동포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주 싱가포르 대사 등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근무하면서 수십년간 재외동포를 현장에서 만나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재외동포가 중요한 이유, 이들의 모국에 바라는 사항, 모국과의 상생 등에 대한 경험과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알려주세요. 아울러 동포사회와 한국에 대한 거주국의 인식과 위상이 그 사이에 많이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동포들이 모국이나 거주국에서 활약하고 공헌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널리 알릴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후 첫 행사로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에 대해서는 그간 각종 동영상, 홍보물을 통해서 전파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모국기여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여 언론과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습니다.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사례도 수집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재외동포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단순 홍보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DB 마련을 추진중입니다.”

## 동포사회와 모국간 교류 협력 확대 및 소통 강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모든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병무, 세금, 교육, 비자 등 여러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거나 각종 지원 예산이 늘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운용 그리고 다양한 민원 대응에 대한 동포청의 정책과 방향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보와 운용 관련, 동포청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를 반영하면서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안은 1,071억으로 전년 대비 4억원, 0.4% 증액됐습니다. 사실, 동포청 출범 이전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 당시 사업비(2023년 676억원)에 비해서도 출범 이후 사업비(2024년 883억원)는 대폭 증액(31%)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도 ▲동포사회의 세대교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정체성 함양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와 소외동포 보듬기 확대 ▲동포사회와 모국간 교류 협력 확대 및 소통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는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의 편리성 제고는 동포청의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이에 동포청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법무부·병무청·국세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로 구성된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65일 무중단 민원콜센터, 온라인 영사민원시스템도 운영하며 시간, 공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국내 각종 행정·상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확인이 힘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 확인 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점차 그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취임사에서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포청은 재외동포를 보호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포청 직원 한명 한명이 모두 재외동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 역량 강화 및 재외동포 이해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포재단에서는 LA, 도쿄, 베이징, 알마티 등 일곱 군데 공관에 직원을 파견해서 동포 업무도 보고 현장 경험도 쌓게 했습니다. 이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이라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동포청 전담 인력 배치가 긴요합니다. 특히,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고, 동포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우리청은 그간 주요 공관에 동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왔는 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포사회 거점 지역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위상 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내실화 추진”**

임기 중에 가장 우선(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동포사회는 더 이상 모국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동포정책은 우리의 아픈 이주역사의 치유에 집중하고, 따라서 동포사회와 본국과의 민족적, 감성적 유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

만 지금은 많은 동포분들이 거주국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외동포 사회의 위상 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있다 보니 동포들의 방문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동포들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는 서울 종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각종 행정 민원 처리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며 동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도 함께 활용하여 동포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 송도에 소재한 청 본부까지 동포분들의 방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동포청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꾸준히 지역별·분야별 동포 간담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동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 동포청 서비스센터 분소 설치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취임 하신 지 3개월이 됐습니다. 2대 청장으로서 부임 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재외동포사회를 향하는 정책과 사업이 보다 꼼꼼하게 꾸려져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포분들의 역사적 아픔을 보듬는 동시에 앞으로의 동포사회 성숙을 도모하는 과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늘 동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신생조직인 만큼, 재외동포들께서 기대하시는 동포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인원,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예산·인사 당국, 국회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서 세 번째)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네 번째)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중소기업 · 한상 상생 한마당’ 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 국내외 3천여명 참석...역대급 성과를 올리고 폐막

**전** 세계 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상생 한마당’을 펼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24일 전주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5천8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한 역대급 성과를 올리고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기업인 3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석기 국회의통위원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우재 대회장 등이 참석

했다.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김순차 동경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동포 경제단체장과 리딩CEO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예향의 도시 전주의 특징을 살려 참가자들은 개막식에서 주최 측이 준비한 한복을 입었다.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 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정부는 동포청을 중

심으로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더 촘촘히 연결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윤 대통령 “동포청 중심으로 한인 경제 네트워크 더 촘촘히 연결”

한덕수 총리는 ‘통상정책 로드맵’과 윤석열 대통령의 활발한 정상 외교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더욱 확장되면 우리 ‘한상(韓商) 경제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 앞서 32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기업전시회’가 개막했다.

오후에는 차세대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영비즈니스리더포럼과 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열렸다.

특히,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는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 UCLA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로봇 공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대회 이틀째인 23일에는 글로벌 한상드림 이사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문단 위촉식, 한상 리딩CEO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세미나, 국내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한상비즈니스자문단은 네트워킹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쳤다. 대회 기간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상시프로그램도 운영됐다.

24일에는 국내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와 경제단체 총회 및 전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후 폐회식이 진행됐다.

### 개막과 동시에 600만달러 계약 체결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전북대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첫날인 22일부터 600만 달러(약 81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가 나왔다.

이날 전북대 운동장에 마련된 기업전시관에서 진행된 수출계약식 행사에서는 피에스비바이오(주)를 비롯한 전북 도내 4개 기업이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4개 한인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해 이번 대회 수출계약의 물꼬를 튼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 수출상담 희망 기업 사전 발굴로 성과 일궈내

이번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수출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500개사를 사전 발굴해 비즈니스 매칭을 도운 결과다. 동포청은 대회 기간 중 이뤄지는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회 종료 직후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국가와 바이어별 수출 전략 수립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업들의 수출 계약 추진 현황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수출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대일 수출 상담 기회 등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첫날인 22일 전북대 기업전시관에서 열린 수출계약 성사에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왼쪽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위촉 “모국 기업 해외진출 돕겠다”

## 이상덕 청장 “대한민국 경제영토 넓히는 데 앞장서달라” 당부



23일 '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 전북대에서 179명의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위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3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 전주시 전북대에서 한인 경제인 179명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원으로 위촉했다.

무역·유통·금융·제조·법률·회계 등 경제계와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번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동포기업 초청 전시·박람회 등에 바이어 또는 미팅 파트너로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조사·컨설팅을 대행하고 국내 청년의 해외 취·창업 멘토로 활동한다.

위촉식에서 이상덕 청장은 “거주국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모국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자문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블라디보스토크국립경제대 교수인 전영수 위원은 답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국 기업의 해외 시장 연착륙을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기 2년의 자문위원들은 동포청이 운영하는 한상넷(www.hansang.net)과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에 등재된다. 동포청은 국내 기업이 자문 등을 요청하면 해당 국가의 동종업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매칭시켜준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화장품 무역·유통업을 하는 전춘봉 자문위원은 “모국 기업과 상품을 현지에 널리 알리는 수출 첨병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LA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샬리 김 위원은 “현지 비즈니스 관행과 회사 설립 및 세법 등에 축적된 노하우를 모국 기업과 나누는 일이라서 보람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

# 한인비즈니스대회서 5천만달러 수출 계약 “단일 건 역대 최다”

풍림파마텍-웨일 엔터프라이즈 LCC, 의료기기 수출 계약 체결



24일 오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대학교 기업전시관에서 풍림파마텍과 웨일 엔터프라이즈(Whale Enterprise) LCC의 5천만불 규모 수출 계약식 모습.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5천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재외동포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대학교 기업전시관에서 풍림파마텍과 웨일 엔터프라이즈(Whale Enterprise) LCC가 의료기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역사상 단일 건으로 역대 최다 금액이다.

계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김우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계약 성사를 축하했다.

풍림파마텍은 주사기, 주사침, 바이알 등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이며 웨일 엔터프라이즈 LCC는 미국

조지아주 노르크로스에 소재한 글로벌 의료용 개인용 보호장구(PPE) 공급업체다.

이번 계약은 대회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재외동포청은 설명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대회의 (기업 간) 수출 상담 건을 추적 관리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등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이뤄진 수출 계약 성과여서 더 의미가 깊다”며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창**

## “문화·비즈니스 융합 한마당”

### 전북 전주서 처음 개최...“K-컬처 세계에 알리는 자리”



김우재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개막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K-컬처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한상(韓商)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향의 도시인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북의 문화유산과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한마당 잔치가 될 것입니다.”

김우재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K-컬처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한상(韓商)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고 세계한상대회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을 바꾼 후 국내에서 처음 열렸다. 특히 대회가 2~3년 열린 도시도 있지만 전주에서는 처음이다.

김 회장은 “세계적인 대회를 전주에서 처음 열게 된 것은 그만큼 문화유산 콘텐츠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라며 “고국을 찾은 동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성과를 올리면서 동시에 따뜻한 모국의 문화와 정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는 700여채의 한옥 및 적산가옥 등이 있는 한옥마을 등 고건축물과 다양한 남도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한상들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0~70년대부터 해외에 한국 상품을 알려온 동포 기업인의 활약이 한류의 시초”라며 “한국 상품과 문화를 소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왔기에 모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오가 늘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리딩CEO들이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해외 진출 성공담을 전해주는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김 회장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에서 취업·창업하는 일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일”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자리 잡은 한상이 징검다리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회 명칭이 지난해부터 ‘세계한상대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뀐 것에 대해 “한상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함께하는 자리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 회장은 1978년 인도네시아에서 창업해 무궁화유통을 식품·무역·관광·건설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키웠다. **[창]**

# ‘로봇의 신’ 데니스 홍

## “인간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

### “인간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로봇 만들 것”강조

“2050년까지 우리가 만든 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이 인간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2일 전주시 전북대에서 개막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만난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53)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기계항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홍 교수는 세계적인 로봇 연구소인 UCLA 로멜라연구소 설립자다. 특히 인간형 로봇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석학이다.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AI)로봇대회인 ‘로보컵 2024’에서 지난해 우승한 독일팀과의 축구 경기에서 6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홍 교수팀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는 키 142cm, 몸무게 38kg으로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는 로봇이다. 그는 “아르테미스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로봇”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날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에서 ‘더 가까워진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기술과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회의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다.

홍 교수는 “우리 로멜라 로봇연구소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재난구조 로봇과 교육을 위한 로봇 등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양한 로봇들을 소개했다.

그는 “실패했을 때 포기하면 끝이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다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면서 “창의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에너지, 낙관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일자리의 미래 2020’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행정·사무 분야를 중심으로 약 8500만 개 일자리



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로봇은 인간이 하기 싫어하고 위험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는 더욱 획기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3~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에도 참석해 휴머노이드 로봇 12개를 선보인다.

한국계 미국인인 홍 교수는 7세 때 부모님을 따라 영화관에서 ‘스타워즈’를 보면서 로봇공학자로서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고려대 기계공학과 3학년 때 미국 위스콘신대로 편입해 학부를 마치고, 퍼듀대에서 기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버지니아 공대 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UCLA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해 미국 과학전문지 ‘파퓰러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논의의 장

## 50개국 350여 명 한인회장 · 대륙별 임원 참가 ‘성황’

### 이상덕 동포청장 “동포사회 · 모국 합심해 총체적 역량 강화 모색”

‘2024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대회는 나인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과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개회식에는 50개국 한인회장과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50여 명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 의장,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70여 명의 국내 주요 인사를 포함해 총 4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한인회장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에서 진일보하여, 국제 사회에서 날이 위상을 높여 가는 우리 동포들과 본국이 함께 호흡하면서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포사회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외 자산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염원으로 탄생한 재외동포청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점배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에서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모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축사에서 “많은 역경에도 타국의 주류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최일선에서 민간 외교관이 되어주고 계신 동포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동포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동포청 신설을 관철시킨 것은 재외동포가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지도록 도우면 대한민국의 국력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동포 차세대가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돕겠다”고 말했다.

### 각국 한인회장 교류 · 소통의 장 참여

이번 대회는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4일까지 나흘 동안 열렸다. 참가자들은 2일 오전 신규프로그램 ‘나의 조국, My Korea’에서 전문가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돌아보았다.

#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



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서 이상덕 동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지는 '정부와의 대화' 1부에서는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해 주요 동포정책을 듣고,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발제자로 나서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 '8.15 통일 독트린' 적극 홍보 결의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이에 기반한 '8.15. 통일 독트린'을 국제사회와 거주국 사회에 적극 알림으로써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또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배 세대와 거주국 사회에 대해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국 기업 청년들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모국 기업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모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재외동

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국 정부와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 한인회장들, 7개항 결의문 채택

한인회장들은 "모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을 도입해 재외선거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현덕수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곽탁희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을 차기 대회 공동의장으로 확정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한인회가 희망하는 주제로 지역별 현안토론을 진행했고,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 발표도 열었다. 사례 발표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한인회의 'San Francisco&Bay Area 한인회관 보수공사'가 최우수상을, 재일본 홋카이도 한국인연합회 '일본 홋카이도 한글학교 활성화'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 “재일동포 일편단심 모국 공헌 재조명해야”

## “일본 내 친한 분위기 커져”...차세대 뿌리 교육 집중 강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김이중 재일민단 단장은 재일동포의 모국 공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난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힘을 보태고 때론 목숨도 희생해온 재일동포의 일편단심 모국사랑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단장은 3일 기자와 만나 “재일동포 선조들이 유달리 모국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자기 뿌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정신을 차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재일동포들의 모국 공헌 사례를 묻자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1960년대 수출입국의 토대가 된 한국 최초 수출산업공단인 '구로공단' 건설 주도, 1988년 서울 올림픽에 100억 엔 성금 전달, 외환위기 당시 15억 달러 송금과 국제 300억 엔 매입 등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해방 후 일본에서 자수성가해 ‘방적왕’으로 불리던

고 서갑호 씨가 1963년 한국 섬유산업을 견인했던 방림방적을 세우고 도쿄의 금싸라기 땅을 주일한국대사관 부지로 기증했다”며 “다른 재일동포들도 나서서 일본 내 한국 공관 9곳을 기증한 일은 전 세계 동포사회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자부했다.

김 단장은 무엇보다도 최근 모국이 앞장서 한일관계 진전을 추진하면서 모두 어깨를 펴고 산다고 반겼다. 일본 주류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현지 이웃들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는 “재일동포는 대부분 차별을 피하려고 보통 일본식 이름인 통명(通名)을 쓰고 있는데 최근 동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당히 한국 이름을 쓰고 싶다고 할 정도”라며 “더욱이 도쿄 코리아타운에서 일상으로 재일동포를 비난하던 ‘헤이트스피치’ 시위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단장은 “이웃한 양국이 등을 돌리고 살면 서로에게도 불행하며 재일동포의 삶은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며 “모처럼 양국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 문화 교류를 더 활발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교류가 늘면 경제교류도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양국 정치인들도 대결 구도보다는 자연스럽게 협력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최근 민단은 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탈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 자격을 취소해 일본에서 살 수 없도록 조치하려는 것에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에 이주한 외국인이 타깃인 정책이지만 최근에 1980년이 이후 건너온 뉴커머(신정주자)인 동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민단이 재일동포 사회의 만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과거 수십년간 한일 관계가 얼었을 때 이를 풀기 위해 물밑에서 재일동포들이 힘써왔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왔다”며 “앞으로도 민단은 가교 역할을 하는데 늘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단은 차세대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국 연수를 추진하는 ‘어린이 잼버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청사진도 제시했다. **[참]**

# “모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

## 11월 한 달간 자르브뤼켄서 ‘한국의 달’ 행사 개최... K-팝 행사 · 한복체험 등 선보일 예정

“**오**호적인 한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트**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노력할 각오입니다.”

오는 11월 2일부터 한 달간 독일 자알란트주 주도인 자르브뤼켄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 변재선 자알란트한인회 회장은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자알란트주는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 규모로 작은 주이다. 1세대 교민 가정과 주립극장 성악가 등 예술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연구원 및 유학생 등 45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변 회장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주최로 1~4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일 한국에 왔다.

자르브뤼켄 시민대학이 주관하며 양케 레리어 자알란트주 총리 후원으로 열리는 한국의 달 행사에서는 한복 체험, K팝 댄스, 어린이합창단 공연, 한국 다큐 영화 상영, 한국의 사찰음식 요리 강좌,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프로그램에는 상트잉베르트 시립오케스트라와 현지 한인 성악가, 국악인 협연으로 아리랑 연주도 눈에 띈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자알란트주에 KIST 유럽연구소가 있는 강점을 살려 한국과 독일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세미나와 특강 등도 돋보인다. 2일 오프닝 행사에서는 로프 마파엘 독한협회 회장(전 주한독일대사)이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산업 협력 역사’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한독간 경제 협력 동향’, ‘한국과 독일의 그린 철강 정책’,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과학기술 협력’, ‘한국의 전통 의학과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변회장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현지 유력인사들과 통합된 형태의 독한협회 자알란트 지부를 지난 2019년 10월 설립해 부회



2일 재외동포청 주최로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변재선 독일 자알란트한인회장이 오는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한국의 달’ 행사 포스터를 가리키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을 맡고 있다.

대체로 세계 한인회장은 거주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회장은 현재 KIST 유럽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과학기술인인 점이 특이하다.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에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로 독일 대통령과 합의해 파견 근무하면서 독일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KIST 유럽연구소 설립 주역인 변회장은 “연구소에는 한때 방문 연구원, 학생 포함 100명에 가까운 연구원들이 있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원이 다소 축소되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전북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 센터도 개소되었고 한국이 호라이즌 연구사업의 준회원국이 되어 앞으로 한국 과학기술계의 유럽 거점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창**

# 윤석열 대통령 “동포의 눈부신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힘”

##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 한인사회 발전 공로 무궁화장 수훈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한덕수 총리,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렸다.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동포의 눈부신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데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환영사에서 “동포들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당당한 주류세력으로 성장하여 한인들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다”라고 동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세계 곳곳의 한인사회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줄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재외동포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 정부, 9명(단체 포함)에게 훈·포장 및 표창

이날 기념식에서는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무궁화장은 일반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다. 황 명예회장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호접란 농장인 코러스오키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 재외동포 총 7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김부식 국제한문화예술협회 대표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철야 재일민단 도쿄본부 고문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민식 캘거리 문인협회 고문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

다음은 포상자 명단이다. (훈격별 가나다순, 국무총리 표창 이상)

▲국민훈장 무궁화장(1):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

▲국민훈장 모란장(3): 조기덕 호주한인회총연합회 고문, 전친민 재일민단 오카야마현지방본부 상임고문, 김부식 국제한문화예술협회 대표

▲국민훈장 동백장(7): 황순정 캄보디아섬유의류업협회 부회장, 이섭윤 재일민단 시마네현지방본부 고문,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류항하 케이에셋그룹 회장, 김종면 청도한국인(상)회 민원법무분과 부회장, 정보영 재덴마크 한인회 회장, 송옥식 재일한국상공회의소하고 상임고문

▲국민훈장 목련장(7): 전상호 (사)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 고 이이호 전 보즈만 시 의회 의원, 신용택 친진한국인(상)회 고문, 김영기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철야 재일민단 도쿄본부 고문, 윤건치 휴스턴 한인회 회장, 고 정진영 전 정스 태권도 스킨관장

▲국민훈장 석류장(7): 이제선 퍼스트텍 최고경영자, 장용진 키스 뷰티그룹 회장, 남창규 재이탈리아한인회 고문, 김병준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이사장, 이영송 한미문화교류재단 회장, 김민식 캘거리 문인협회 고문, 국중열 대암 이태준 장학회 이사장

▲국민포장(10): 오명 상하이저널 사장, 장인택 제이엔제이 대표이사, 김윤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회장, 유대성 대려한국인(상)회 회장, 김부태 퍼시픽 트레이드 인터내셔널 대표, 박형권 세계한인무역협회 미국 동남부지역 회장, 고정미 와이카토 한인회 회장, 고 조중현 전 재일민단 아오모리현지방본부 상임고문, 한영대 (주)끼미우르 대표, 임형빈 한미 총학회 회장

▲대통령표창(33): 조오덕 릴롱게 세종학당 학당장, 김소웅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자문위원, 김창현 항주 한국상회·한국인회 명예회장, 정명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독일 자문, 이광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회장, 김기민 재포르투갈한인회 한글학교 교장, 한정순 前아우쿠스부르크 한인회 회장, 강미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캄보디아 지역담당관,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이리 한미장학재단 회장, 고우수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방본부 고문, 김길자 재일민단 북해도지방본부 고문, 유지광 사이판한인회 회장, 김성희 발리한국학교 교무행정교감, 황상욱 전 선양한국인(상)회 회장, 이종훈 멕시코시티 시민경찰대 부대장, 김영을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석고문, 김경태 법무법인 리들즈 대표변호사, 찰스 허 퍼스트 케어 메디컬 센터 대표이사, 북경한국인회 다누리센터, 김종민 비엔나 한글학교 이사장, 김관식 중국한국인회 화남연합회 회장, 김미경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글로벌사업본부장, 방호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정해유 재일민단 아이치현지방본부 고문,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홍콩한인체육회, 재멕시코한글학교, 필리핀한국상공회의소, 재루마니아 한글학교, 말레이시아 한국인학교,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 주 키토한인회, 하와이한인회

▲국무총리표창(23): 신광수 서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정유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미서부협의회 자문위원, 양영민 코윈 오타와 고문, 남중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북서부지회 지회장, 고지영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최영철 다렌영성과기그룹 회장, 이주상 국기원 태권도사범, 정일권 첸나이 한인회 재정총무국장, 김덕희 재파라과이한인여성회 회장, 최경하 독일 캄니츠시 시립오페라단 합창단원, 신주선 곤명한인(상)회 회장, 이현주 홍콩 유오더블유킨지 전임강사, 강호봉 재인도 한인회 회장, 신돌순 전 스위스 취리히한글학교 교장, 이장하 열지에너지솔루션 법인장, 김진숙 마카오한인회 부회장, 김종순 제이에스홀딩스그룹 대표, 강춘길 단동한국인(상)회 자문위원장, 정동원 유타 한인회 이사장, 김석환 천진한국인(상)회 북진구분회 사무국장, 정운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부회장, 재일민단 아이치현지방본부, 뉴질랜드 예명원 장

##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재외동포 번역가들 숨은 공로 빛났다

채식주의자·흰·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품들 거주국서 번역 역할

**한**강 작가가 10일(현지시간) 한국인으로서 처음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는 각국 재외동포 번역가들의 숨은 공로도 빛났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동포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국어 및 여러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각국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게 노력한 재외동포 번역가는 윤선미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 등 8명이다. 윤 교수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흰', '소년이 온다'를 스페인어로 번역했다.

그는 학창 시절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에서 중세 스페인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귀국한 뒤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서어권 전문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윤정 브라질 상파울루주립대 교수는 '채식주의자'를, 김지윤 상파울루대(USP)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소년이 온다'를 각각 포르투갈어로 번역했다. 임 교수는 10대 시절 브라질에 이민 간 1.5세대.

일본에서는 김훈아 번역가가 '사람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는 일본 시마네현의 국제교류원에서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있으며, 센슈대와 도쿄여자대에서 한국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사할린 출신의 이상윤 번역가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이 밖에 정은진 프랑스 국립동양학대 교수는 '채식주의자', '흰',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등 네 편의 작품을, 최경란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각각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로 알려진 최경란은 한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뒤 프랑스에 유학 후 파리에 정착했다. 독일 뮌헨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며 번역가로도 활동하는 이기향은 '채식주의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들을 고르고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그의 작품들을 읽으려는 독자들이 몰리면서 한강의 책들은 몇세 만에 누적 기준으로 100만부 넘게 팔렸다.

와 '흰'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한편, 한강 작가가 한국인으로서 처음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외동포 문학인들도 속속 '한강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과 중국 등의 재외동포 문학인들은 주말 내내 온오프라인에서 노벨문학상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미주한국문인협회(회장 오연희)는 재미시인협회(회장 고광이), 재미수필가문학가협회(회장 이현숙), 미주소설가협회(회장 홍영옥)와 함께 주말인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내 강남회관에서 '한강 작가 작품 읽기' 모임을 열었다. **창**

## “내년 삼일절에 50만 명 갓쓰고 행사 벌이는 게 꿈”

‘모자박사’ 조현종 (주)샤뵐 대표, 미국 등에 갓 1만5천개 수출 성과

“1919년 3·1운동 이후 대규모로 갓을 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년 삼일절에 50만 명이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 갓을 쓰고 행사를 벌이는 게 꿈입니다”

24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만난 모자 전문 기업 (주)샤뵐 조현종(59) 대표는 “‘1초 갓’ 1만 5000개를 미국 등에 수출하게 됐다”며 밝게 웃었다.

‘1초 갓’은 조 대표가 갓의 대중화를 위해 개발한 상품이다. 무형문화재 갓일 장인인 박창영 선생이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프리미엄 갓은 개당 수 백 만원에서 최고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이 구매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번거로운 보관법과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1초 갓이다. 주머니에서 꺼내 펼치면 1초 만에 갓으로 변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엔 수출하게 된 것도 바로 1초 갓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에 국내에서 유일한 ‘루이엘모자박물관’을 설립해 관광도 맡고 있다. 조 대표는 경희대 경영대학원 연구교수를 지낸 경영학 박사로 국내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다. 그가 모자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든 것은 부인 설리 천의 영향이 컸다.

설리 천은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의 모자전문학교 C.M.T를 졸업했다. 파리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다년간 국내 활동을 통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자디자이너의 상징이 됐다. 불문학을 전공한 설리천은 서정성 넘치는 상상력과 섬세한 손끝으로 대중적인 제품에서부터 디자인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작품까지 우아함과 로맨티시즘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TV, 영화, 공연에 모자를 협찬하고, 모자교육 강의, 패션쇼, ‘모자 만들기’(미진사 출판) 저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주)샤뵐 디자인 실장을 맡고 있다.

설리 천은 국내 최초로 모자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 굿즈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한국일보가 제정한 ‘대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에 설치된 전시 부스에서 갓을 쓰고 포즈를 취한 조현종 대표.

민국 명품브랜드’ 상을 비롯해 한국섬유신문사가 주는 ‘한국 패션 브랜드 대상’, 국제문화 관광상품 엑스포 동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디스트다.

‘루이엘’은 프랑스어로 그(lui)와 그녀(elle)를 뜻하는 합성어다. ‘남녀 노소 모든 사람을 위한 모자’라는 뜻에서 탄생했다. 설리천이 디자인하고 손수 제작하는 국내 최초의 모자 전문 브랜드다.

‘고객들에게 모자를 통해 행복한 상상을 실현시키자’는 목표로 1999년 서울 종로구 화동에 작은 아틀리에로 출발한 (주)샤뵐은 2010년 매출 200억 원에 매장 80개, 직원 수도 100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고객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으며 규모를 줄였으나 회복세를 찾고 있다.

조 대표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전통 갓의 국내를 뛰어 넘어 세계 최고의 모자문화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다. **장**



##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작은 땅의 야수들' 해외문학 부문 영예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라나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주혜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키릴 바티긴과 함께 해외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는다.

김주혜는 해외문학 부문 최종 후보 10개 작품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올라 토카르추크 등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한국계 작가의 소설이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의 나라 러시아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김주혜의 데뷔작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낸 장편소설로, 국내에는 2023년 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됐다. 러시아에서는 바티긴의 번역으로 인스피리아에서 출간됐다.

다산북스에 따르면 심사위원 파벨 바신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에 대해 "여기에는 짐승들이 있다. 그중 호랑이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나는 이 작품을 알렉시 톨스토이의 '갈보리로 가는 길'에 비교하겠다"며 "정말 잘 쓰였고, 투명하고 성숙한, 젊은 작가로는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 '태국 태권도 영웅' 최영석 감독, 왕실 최고등급훈장 받았다

### 태국 최초 올림픽 2연패 이끌어... "태권도로 한국 좋은 이미지 심겠다"

태국 최초 올림픽 2연패를 이끈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최영석 감독이 태국 왕실이 수여하는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17일 방콕 후아막 실내경기장에서 체육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감독은 체육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디렉쿠나폰 1등급 훈장을 받았다.

이번 훈장 수여 대상은 2024 파리올림픽을 비롯해 최근 3년간 국제 대회 등에서 태국 명예를 높인 체육인 150명이다. 최 감독이 가장 먼저 싸라왕 티안텅 관광체육부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최영석 감독은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도자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다"며 "태국의 올림픽 태권도 2연패를 이루고 훈장을 받아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2002년부터 대표팀을 맡아 태국을 태권도 강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가 감독으로 처음 출전한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국 대표팀은 동메달을 수확했고 지난 파리올림픽까지 6회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다.

특히 파니팍 왕파타나깃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파리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두 대회에서 모두 태국이 따낸 유일한 금메달이었고, 태국 선수의 올림픽 2연패도 처음이다. 파니팍 선수가 금메달 확정 후 최 감독에게 달려가 큰절하는 장면도 화제가 됐다.

최 감독은 2022년 태국 국적을 취득했다. 태국 이름은 ‘승리를 이끄는 전사’라는 뜻인 ‘차차이 최’다. 그는 귀화 이전인 2006년에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국 왕실 훈장을 받았다.

## 6살에 한국 떠나, 46년 만에 주한 미군 장군으로 금의환향 화제 주한미군 최초의 한국계 장성 제19지원사령관 진H 박 준장

6살에 미국으로 떠난 소년이 46년 만에 미군 장군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화제다. 주인공은 지난 6월 주한미군 캠프헨리 제19지원사령관으로 취임한 진H 박(52·한국명 박진형) 준장이 다. 그는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부임한 한국계 장성급 사령관이다. 1871년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가 연상된다.

약사였던 박 준장 아버지는 1972년 그를 낳고 1년도 안 돼 박 준장 어머니와 함께 먼저 뉴욕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바람에 박 준장은 1978년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조부모 손에 자랐다. 6살이 되고 나서야 박 준장은 나 홀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조부모가 스튜어디스에게 부탁해 보호자 없이 뉴욕까지 부모를 만나러 간 것이다.

박 준장은 초중고를 마치고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94년 미 육사를 졸업한 그는 미 육군 소위로 임관해 독일,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근무했다. 2012년에는 제19지원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다.

박 준장 아내 루시 여사도 9살 때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건너와 옷 가게와 식당 등을 운영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나중에 교사가 된 아내는 박 준장이 과거 대구에서 근무할 때 미군 부대 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박 준장 아들은 현재 미 육군 중위로 복무 중인데 지난 5월 동료 장교로 복무 중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딸은 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창**



##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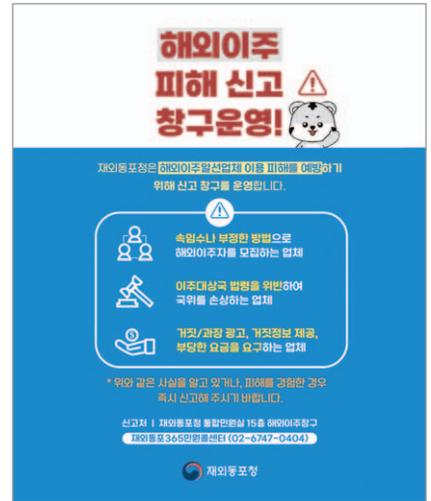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민의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알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해외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oka.go.kr)의 '재외동포 지원서비스'란에서 공개한다.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거짓정보 제공 및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 사항을 접수한다.

신고는 통합민원실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 연중 24시간 운영)에서 받는다.

재외동포청은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 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해외 언론사 활약 한인 언론인, 모국 찾았다

재외동포청, 14~19일 일본·호주·멕시코 등 5개국 언론인 초청

일본과 호주 등 해외 언론에서 활약하는 한인 언론인들이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의 초청으로 모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청은 14일부터 19일까지 5개국 현지 언론사에서 활약 중인 6명의 재외동포 언론인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했다.

지난해 개청(6월5일) 이후 거주국 미디어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초청 행사에는 호주 국영방송 SBS 책임 PD, 일본 TBS 방송 뉴스제작부 기자, 일본 홋카이도신문 기자, 카자흐스탄TV 방송 호스트, 키르기스스탄 RETRO 라디오 방송 진행자, 멕시코 웹 기반 미디어 플랫폼 대표가 참가했다.

이들은 동포청 주최 간담회 참석을 비롯해 인천지역 미디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국내 언론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인천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돌아보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모국 언론 환경 및 미디어 구조에 대



해 이해를 높였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역량을 국내에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초청을 통해 세계 미디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언론인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상덕 동포청장, 파독근로자 격려 만찬 주재

이상덕 재외동포청 청장은 14일 저녁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파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만찬을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 등에 거주하는 파독근로자 출신 재외동포 32명과 국내에 정착한 파독근로자 48명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1970년대 모국 송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여러분들께서 현지 사회에서 쌓아 올린 훌륭한 평판은 유럽 동포사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재외동포청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듬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파독 60주년을 맞아 근로자 모국 초청 행사와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지난 8일 재독한인총연합회(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회 파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 정성규)의 인솔하에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파독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출신 재외동포 20명을 오찬에 초청해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

## 재외동포청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제74주년 기념식 참석

“조국을 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9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열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개최한 행사로, 이 청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장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축사는 보훈부 장관이 대독하였으며, 재외동포청장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격려사를 했다.

이 청장은 격려사에서 “조국을 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일학도의용군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전역에 거주하던 재일 한인 청년 학생 총 642명이 스스로 재일 학도 의용군을 조직했다. 재일 학도 의용군은 불과 1주일 정도의 훈련을 거친 후 참전했고,



백마 고지 전투 등 주요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재일 학도 의용군 참전 기념비는 재일 학도 의용군 출신들로 조직된 '재일 학도 의용군 동지회'가 산화한 동료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1979년에 세운 기념비이다.



##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1~4일)
- 제1회 파독근로자의날 기념행사(10월 14일)
-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10월 22일~24일)

### 10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1일~4일: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8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 3일: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 4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11일: LA 우리방송 회장 면담
- 14일: 제1회 파독근로자의날 기념행사
- 16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전북 전주)
- 22일~24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 24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

## 재외동포청 공지

### ‘2024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장혜영(시) · 조성국(소설) · 이명란(수필 · 수기)

재외동포청, 26회 수상작 발표…시, 소설, 수필104수기 3개 부문 13명 선정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시 부문 장혜영(아랍 에미리트)의 ‘모시’, 단편소설 부문 조성국(미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수필·수기 부문 이명란(뉴질랜드)의 ‘이웃집 여자 린다’가 각각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이들 각 부문 대상 수상작과 함께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총 13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는 재외동포청(oka.go.kr) · 코리아넷(korean.net) · 소통24(sotong.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수상자 13명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심사는 문태준, 정호승(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이경자(이상 수필·수기 부문) 등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과 전문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높은 수준의 작품을 제출해 심사가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문학상 공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3개 부문에서 이뤄졌고, 전 세계 53개국에서 504명이 1천304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특히 올해 수상 부문과 상금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접수작이 84% 증가해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단편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조성국 씨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 한인 문학도들의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카디예프 문학상’, ‘쿠프린 문학상’ 등을 수상한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등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다.

이상덕 청장은 “26년의 긴 역사를 가진 ‘재외동포 문학상’은 꾸준히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돼 재외동포 문학 저변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을 꾸준히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외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